

■ 2001년 국내 경제 전망 ■

2001년 경제 여건 변화: 전망의 전제 조건

- (내수 위축형 경기 하강 국면 돌입) 경기가 하강 국면에 돌입하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하강 속도는 비교적 완만한 형태를 띠게 될 것임
 -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제거되어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
- (세계 경제 환경)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둔화됨과 동시에 일본·유럽 경제의 회복이 두드러지면서 2000년과는 경제 지형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됨
- (고유가의 지속)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가 2001년 들어서도 27~30달러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
- (정부 정책 기조) 물가 상승 압력을 우려한 긴축 정책보다는 신축적 정책 운용을 통해 경기 급락을 방지하는 데 정책적 주안점이 두어질 가능성이 높음

2001년 경제의 특징

- (경제 성장률의 둔화)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하강이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
- (경상수지 균형 수준 도달 가능성)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큰 폭으로 축소되어 균형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
- (물가 상승 압력의 증대) 내년 들어서도 세계경제의 호조로 국제 유가를 비롯한 수입원자재 가격의 강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비용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
- (기업의 수익성 악화 우려) 고유가,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한 고비용 체제 재현 가능성

최악의 시나리오

- (전망의 전제조건) 수출이 부진해지고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경우 급격한 경기 하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
 - 대외적으로 고유가의 지속이 일본 경제 및 유럽 경제의 회복을 저해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

- 2차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못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기업의 자금난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경기 진작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
- 경기 급락에 의한 매출 부진, 금융시장의 불안 지속으로 인한 신용 경색의 심화 및 주식시장의 침체
- (실물 부문) 성장률이 4%대로 하락하면서 장기 불황 국면 돌입
 - 고유가 및 환율 상승에 의한 수입 물가 급등으로 공업 제품 및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도 불안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
- (금융 부문) 대외신인도 하락 및 달러화 공급 감소로 원/달러 환율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신용 경색의 지속으로 시중 실세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
 - 금융 구조조정의 완수 실패, 만성적 기업 자금난 및 증시 붕괴 현상 등이 나타날 경우 장기적 금융 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
- (비관적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) 현 시점에서 볼 때,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확률은 20~30% 정도로 판단됨

< 2001년 경제 전망 >

	1999년	2000년 (전망)	2001년(전망)	
			기존 시나리오 (70%)	최악의 시나리오 (30%미만)
국내총생산(%)	10.7	7.8	5.5	4%대
경상수지(억 달러)	250	110.0	20.0	-30
무역수지(통관기준)	239	104.0	6.0	-8
수출(억 달러)	1437	1709.0	1822	1803
(증가율, %)	(8.6)	(19.0)	(9.7)	(5.5)
수입(억 달러)	1198.6	1605.0	1817	1812
(증가율, %)	(28.4)	(34.0)	(14.9)	(11.5)
소비자물가(평균, %)	0.8	2.3	3.5	3.9
회사채수익률(평균, %)	8.8	9.5	10.0	11.5
원/달러 환율(평균)	1189	1110	1110	1200
실업률(평균, %)	6.3	4.0	3.4	4%대

< 시나리오별 경제 전망 >

		시나리오 I	시나리오 II
전제 조건	국내 경기	- 내수 부진 속,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완만한 하강 국면 진입	-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급격한 하강 국면 진입
	국내 금융 시장	- 2차 금융·기업 구조조정의 완만한 마무리 - 불확실성 다소 제거	- 2차 구조조정의 실패로 인한 불확실성 상존 - 기업의 자금난 확대
	세계 경제	- 세계 경제 호조 - 고유가가 세계 경제 성장세 저해 못함	- 고유가 지속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
	정부 정책	- 신축적 정책 운용을 통한 경기 급락 방지 주력	- 경기 부양 노력 실패
	실현 가능성	70%	30%



2001년 경제 전망	경제성장률(%)	5.5	4%대
	경상수지(억 달러)	20.0	-30.0
	소비자물가(%)	3.5	3.9
	회사채수익률 (평균, %)	10.0	11.5
	원/달러 환율 (평균)	1070	1200
	실업률(%)	3.4	4%대



비교적 짧은 경기 하강 국면	장기 불황 국면 진입, 금융 공황 장기화, 스테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
-----------------	--

2001년 국내 경제 전망

I. 2001년 경제 여건 변화

- (전망의 전제조건)

- 경기가 하강 국면에 돌입하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하강 속도는 비교적 완만한 형태를 띠게 될 것임
-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제거되어 금융 부문이 실물 부문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
-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하고 일본 및 유럽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세계 경제가 호조를 보일 것임. 또한 유가 상승이 세계 경제의 상승세를 저해하지 못할 것임
- 정부 정책도 경기 급락을 막는데 주안점이 두어져 신축적인 정책 운용이 이루어짐

- (경기 하강 국면 돌입) 내수 위축형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

- 소비 및 설비 투자 증가세 둔화, 건설투자의 회복 미미 등 내수 부문의 위축이 심화되면서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
- 다만 경기가 하강 국면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된다면 하강 기간은 과거에 비해 다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. 수출이 상승세를 지속하였던 92년 이후의 경기 하강기의 경우 그 기간이 5순환기까지의 평균 하강 기간인 17개월에 비해 5개월 이상 짧은 12개월을 기록하였음
- 반면, 고유가 지속 등 비용 요인의 상승으로 수출이 위축될 경우 경기 하강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존재함

-
- (세계 경제 환경)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둔화됨과 동시에 일본·유럽 경제의 회복이 두드러지면서 2000년과는 경제 지형이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됨
 - (미국) 자본지출, 건설투자, 소비지출의 강세 국면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연착륙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
 - (일본) 실질적인 투자 증가와 소비의 회복으로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
 - (유로권) 소비자 심리 호전에 따른 내수 증가 및 수출 경기 회복으로 성장세 지속

 - (고유가의 지속)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가 2001년 들어서도 27~30달러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
 - 세계 원유 재고량이 99년 이후부터 급속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고, 2001년에는 재고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
 - 세계에너지기구(IEA) 전망에 따르면 2001년의 일일 평균 원유 수요량이 전년 대비 2.5% 증가한 7,770만 배럴이고, 일일 평균 원유 공급량은 이보다 110만 배럴 정도 부족할 것으로 나타남

 - (정부 정책 기조)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을 우려한 긴축 정책보다는 신축적 정책 운용을 통해 경기 급락을 방지하는 데 정책적 주안점이 두어질 가능성이 높음
 -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기업 및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음
 - 또한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이제 막 벗어난 우리 경제가 다시 급속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경우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
 - 그러므로 정부 정책은 경기 변동을 최소화하고 경기 하강 기간 및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책의 미세한 조정(fine-tuning)을 통한 경기 급락 가능성 방지에 정책의 주안점이 두어질 가능성이 높음

II. 2001년 경제의 특징

- (경제 성장률의 둔화)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하강이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
 - 올해 성장을 주도하였던 소비 및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건설투자의 회복세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등 내수의 전반적인 침체로 경제성장률은 5%대로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
 - 또한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 및 원화 절상 등에 의한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출 부문의 성장 탄력성이 상실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음
- (경상수지 균형 수준 도달 가능성)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큰 폭으로 축소되어 균형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
 - 2001년 중 수입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수출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폭은 더욱 감소하여 20억 달러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임
 -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98년 400억 달러를 상회한 이후 99년 244억 달러, 2000년 100억 달러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실질적으로 경상수지 균형을 의미하는 것임
- (물가 상승 압력의 증대) 내년 들어서도 세계경제의 호조로 국제 유가를 비롯한 수입원자재 가격의 강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비용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
 - 석유 재고와 생산설비는 부족한 반면 세계경제의 호조로 석유수요는 급증한 데다 OPEC 회원국들의 유가 하락 경계 의지로 국제 유가의 강세기조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
 - 국제 유가의 상승이 국내 제조 원가에 반영되어 다시 비용 측면의 인플레이 압력으로 작용하는 시차(1개월~4개월)를 감안할 때 내년부터 유가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됨

· 정부는 소비 절약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국제 유가를 국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할 방침이어서 올 상반기와 같이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

- (기업의 수익성 악화 우려) 고유가,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한 고비용 체제 재현 가능성

· 고유가 및 국제 원자재가의 상승 지속으로 인한 비용 상승, 환율 하락에 의한 수출 채산성 악화 등으로 기업의 고비용-저수익 구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음

< 2001년 경제 전망 >

구분		1999년	2000년	2001년
국민계정	국내총생산(%)	10.7	7.8	5.5
	총소비(%)	8.5	6.8	5.1
	민간소비(%)	10.3	7.9	5.8
	총고정자본형성(%)	4.1	12.9	7.4
	건설투자(%)	-10.3	1.5	9.6
	설비투자(%)	38.0	30.3	4.8
대외거래	경상수지(억 달러)	250	110.0	20.0
	무역수지(통관기준)	239	104.0	31.0
	수출(억 달러)	1437	1709.0	1875.0
	(증가율, %)	(8.6)	(19.0)	(9.7)
	수입(억 달러)	1198.6	1605.0	1844.0
	(증가율, %)	(28.4)	(34.0)	(14.9)
가격지표	소비자물가(평균, %)	0.8	2.3	3.5
	회사채수익률(평균, %)	8.8	9.5	10.0
	원/달러 환율(평균)	1189	1110	1070
실업률(평균, %)		6.3	4.0	3.4

III. 부문별 전망

- (소비) 경기 하강에 따른 가계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
 - 내구재에 대한 이연소비 증가세의 둔화,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 확산, 증시 침체로 인한 가계의 자산 가치 하락 등으로 소비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
 - 경기 하강에 따른 임금 상승률의 둔화와 비용상승에 의한 인플레이 압력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하는 것도 소비 둔화세를 가속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
- (투자)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와 건설투자의 증가세 반전이 기대됨
 - 설비투자는 경기 하강과 99년과 2000년의 빠른 증가세의 영향으로 조정 국면 진입이 예상되나, 일부 수출 호조 업종을 주도세로 증가세는 유지할 전망이다
 - 건설투자는 99년 하반기 이후의 수주 증가세 반전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되나, 경기 하강 국면 진입에 따라 큰 폭의 반등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, 체감상의 건설투자는 여전히 극심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임
- (대외거래) 수출 및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 - 엔화 강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강화와 아시아 지역의 경기 회복 등이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나,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의 경기 둔화, 원화 환율의 점진적 하락 등이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임
 - 수입은 국제 유가 강세와 원화 환율 하락 등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와 국내 경기 하강으로 올해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보임
 -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앞지름으로써 경상수지 흑자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임
- (고용)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하면서 실업률 하락세가 주춤해질 것으로 전망
 - 내년 이후 예상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고용 창출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실업률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

-
- 반면,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실업률 하락세는 크게 둔화되면서 3%이하로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
 - (물가) 국제 유가의 강세, 공공요금의 인상 압력, 집세의 오름세 등으로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
 - 국제유가를 비롯한 수입원자재 가격의 강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비용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올해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
 - 의보수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 압력과 집세의 오름세 등이 내년도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음
 - 그러나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수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어서 초과수요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
 - (원/달러 환율) 금융구조조정에 의한 국내 금융불안의 점차적인 해소로 원/달러 환율은 전반적으로 금년보다는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그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
 - IMF이후 환율하락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온 위험프리미엄이 금융구조조정의 진척에 따라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임
 - 그러나 내년도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와 국내 증시의 침체지속으로 인한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의 자금유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등 달러 공급요인이 올해에 비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환율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
 - (금리) 예금자보호한도의 축소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시에 따라 은행권에 몰린 단기자금이 직접금융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 시중 실세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
 - 주식시장이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여전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투신사 비과세 펀드나 MMF에 몰린 자금의 수요처는 주로 국공채와 같은 무위험 채권이 될 것으로 보임
 - 또한 내년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차환발행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펀드가 가동될 전망이어서 이로 인한 채권수요는 적어도 올 하반기 수준의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임
-

IV. 최악의 시나리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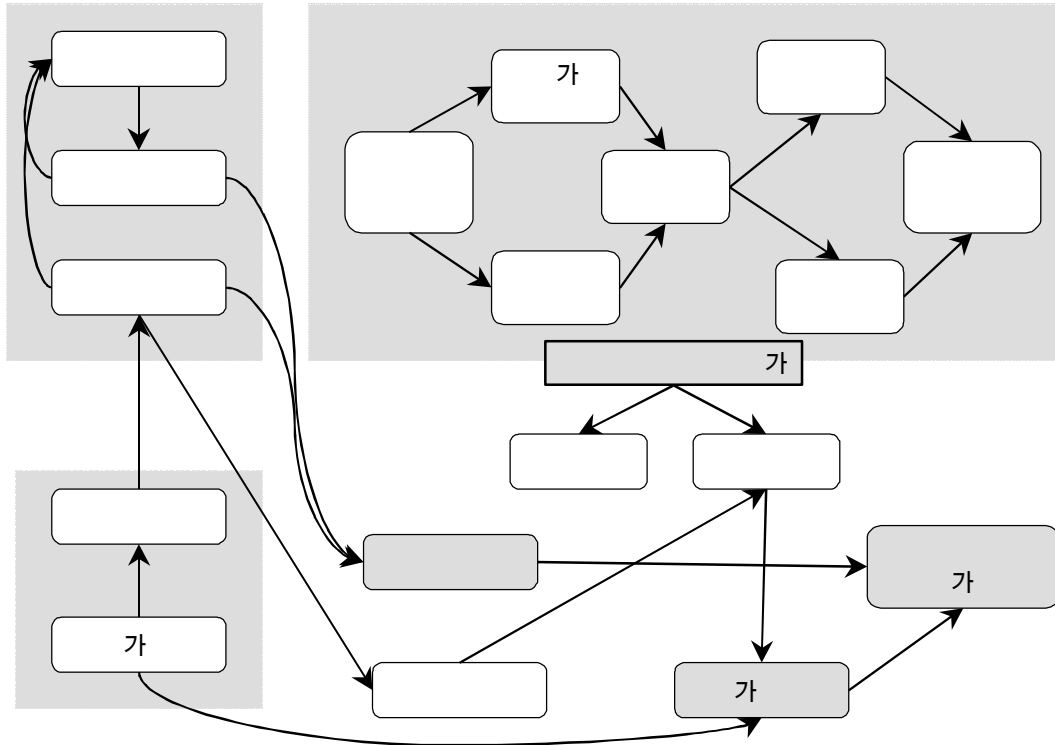
- (전망의 전제조건) 수출이 부진해지고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될 경우 급격한 경기 하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
 - 대외적으로 고유가의 지속이 일본 경제 및 유럽 경제의 회복을 저해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어 우리 수출의 상승 탄력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음
 - 국내적으로는 2차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기업의 자금난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경기 진작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
 - 경기 급락에 의한 매출 부진, 금융시장의 불안 지속으로 인한 신용 경색의 심화 및 주식시장의 침체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부도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음. 이 경우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게 될 것임

- (실물 부문) 장기 불황 국면 돌입

- (경제성장) 수출 및 내수 부진에 의해 급속한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경우 가계의 소비 심리 및 기업의 투자 심리 상실로 소비, 투자 등 내수가 다시 부진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됨. 이 경우 성장 탄력의 상실을 유발하여 불황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. 경제성장률은 4%대로 크게 하락하게 될 것임
- (대외거래) 세계 경제의 부진과 수출 기업의 자금난으로 수출 증가세가 대폭 하락하고 국내 경제의 부진으로 수입 증가율도 하락하게 될 것임. 그러나 고유가로 인해 수입 증가율 감소는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, 대외적인 수출 저해 요인은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게 될 것임

-
- (고용) 성장률 저하, 미미한 경기 부양 효과 및 신용 경색에 의한 부도 증가 등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음
 - (물가) 고유가 및 환율 상승에 의한 수입 물가 급등으로 공업 제품 및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물가도 불안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. 이에 따라 전반적인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%대 후반에 이를 전망이다
 - (금융 부문) 대외신인도 하락 및 달러화 공급 감소로 원/달러 환율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신용 경쟁의 지속으로 시중 실세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
 - 경상수지의 적자 반전과 대외신인도 하락에 의한 외국인 투자 자금 이탈로 달러화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하여 원/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게 될 것임
 - 환율 상승과 함께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시중 실세 금리도 급등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
 - 금융 구조조정의 완수 실패, 만성적 기업 자금난 및 증시 붕괴 현상 등이 나타날 경우 장기적 금융 공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
 - (비관적 시나리오의 현실화 가능성) 현 시점에서 볼 때,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확률은 20~30% 정도로 판단됨
 - 내년 이후 유가의 상승이 어느정도 둔화될 전망이 우세하고 미국 경제도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세계 경제가 부진에 빠질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음
 - 경기가 급락할 조짐이 보일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개입주의적 경제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
 - 반면, 유가 상승 지속 및 대우차 매각 지연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확대 등 최근의 경제 불안 요인이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임

< 최악의 시나리오 >



< 2001년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의 되지 못할 경우 경제 전망 >

	1999년	2000년	2001년
국내총생산(%)	10.7	7.8	4%대
경상수지(억 달러)	250	110.0	-30
무역수지(통관기준)	239	104.0	-8
수출(억 달러)	1437	1709.0	1803
(증가율, %)	(8.6)	(19.0)	(5.5)
수입(억 달러)	1198.6	1605.0	1812
(증가율, %)	(28.4)	(34.0)	(11.5)
소비자물가(평균, %)	0.8	2.3	3.9
회사채수익률(평균, %)	8.8	9.5	11.5
원/달러 환율(평균)	1189	1110	1200
실업률(평균, %)	6.3	4.0	4%대

V. 정책적 시사점

- 하반기 이후 국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등 대외 여건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국내 경기의 급속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임
 -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이제 막 벗어난 우리 경제가 다시 급속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경우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
 - 경기 변동을 최소화하고 경기 하강 기간 및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책의 미세한 조정(fine-tuning)을 통한 경기 급락 가능성 방지에 정부 정책의 주안점이 두어 져야 할 것임
- 경기가 조기에 하강국면에 진입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기업 및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이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음
 - 또한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던 기업들의 투자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,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할 경우 투자 심리의 재위축을 가져와 향후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음
 - 특히, 내년 이후 소비 및 설비 투자 증가세 둔화, 건설투자의 회복 미미, 원화 절상 등에 의한 수출 부문의 성장 탄력 상실 등으로 성장 견인 요소들이 소멸될 경우 경기가 급랭할 수도 있음
- 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성급한 총수요 관리 정책의 시행보다는 신축적 재정 운용을 통한 재정 정책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
 - 균형 재정을 무리하게 고수하기 보다는 중장기 재정 건전화 계획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경기상황에 맞춰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정책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
 - 또한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단기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지만,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은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 요인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보여 단기 금리 인상에 의한 총수요 관리로 대응하는 경우 과도한 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

- 또한 경기를 급냉 시킬 가능성이 있는 금융 시장의 불안 심리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음

-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장기화로 인해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될 경우 실물경제가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
- 금융 불안 심리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금융시장 안정책과 기업의 일시적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업 유동성 지원이 필요가 있음

(거시경제실 bslee@hri.co.kr ☎3669-4021)

< 참고 > 97년 외환위기 발생 직전과 비교한 최근 경제 현황

- 최근 경제 상황은 대외 거래 부문을 제외하고는 97년 외환위기 반발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
 - 국내 경기 하락, 해외로부터의 충격,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불안 확산 등 당시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남
-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보다는 금융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

구 분	97년 상반기	현재 상황
국내 경기 전반	- 경기 회복 지연 - 노동 3법 파동 - 고비용구조 개선 미흡	- 하강 국면 돌입 - 소비 및 투자 위축
해외 경제 환경	- 미국을 제외한 일본 및 EU 경기 침체 - 동남아 국가의 환위험 증대	- 고유가 충격 도래 -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 대두 - 동남아 경기 불안 지속
국내 산업	- 산업 양극화 심화(반도체 등 일부 업종 의존도 심화) - 새로운 주력 업종 부재	- 벤처 및 IT 분야의 견인력 미흡
기업 채무	- 재무구조 악화 지속 -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의 부실 심화	- 부실 기업의 우발 채무 증가 가능성 - 대기업집단의 장부상 채무 감소
자금/증권 시장	- 금융산업구조개선안 국회 통과 지연 - 자금시장 양극화 심화 - 증시 침체 지속	- 금융 구조조정 지연 - 공적자금 조성 난맥상 지속 - 자금시장 양극화 심화로 일반 중견 기업의 자금 조달 곤란 - 증시 하락 지속
외환 시장	- 시장 규모 협소 - 명목-실질 환율 gap 확대	- 시장 규모 성장 부진 - 명목-실질 환율 gap 부재
경상 수지	- 대규모 적자 지속	- 흑자 금감(2000년) - 적자 반전 가능성(2001년)
외환보유고/외채	- 외환보유고 금감 개시 - 외채 급증 및 관련 통계 투명성 부재 - 단기 외채 비중 증가	-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보 - 외채 관련 통계의 투명성 확보 - 단기 외채 증가세
실물경제 대외신인도	- 신용등급 하락 개시 - 수주 산업의 해외 마케팅 차질 발생 개시	- 신용등급 상승 부진 - 수주산업 신인도 유지 - 對정부정책 및 부실기업에 대한 신인도 하락